대학생의 모자 치수 인지도 및 선호 디자인에 관한 연구

Cognizance of Size and Preference Design of Hats of College Students

이진희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Lee, Jin Hee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by which more suitable hats manufacturing can be possible. The method for this research was to ask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at their favorite design and size are by the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383 college students in Seoul, Iksan. Statistical test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Crosstabs, F-test, Duncan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conclusion which gotten through this process is that, first of all, their favorite design is Apollo cap,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n, It also appeared that most of them didn't know their own hat size, but responded that their hats are suitable for their heads, it means that they are contented with their hats. Yet, those positive responses are, in some part, due to the insufficiency of the questions that can point out negative responses.

Key word : hat, Cognizance of size recognition, college student

Ⅰ. 서 론

인체의 크기나 형태를 파악하는 체형연구는 체간부 뿐 아니라 모자나 양말, 장갑과 같이 인체에 부분별로 이용되는 의복에 대하여 그 착용되어진 부위에 대한 의복 구성이나 그 적합성을 위해 각 부위별로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형태의 개성표출과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의복에 의해 체간부를 덮는 표현 외에 머리 및 손, 발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로의 이미지 연출은 또 다른 패션의 표현이 되고 있다. 특히 모자의 착용은 서양사람들에 의해 주로 착용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자주 착용되는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산업에서의 안전모 착용이나 스포츠에서의 스포츠용 헬멧의 착용, 군복에서의 군모 착용 등 다양한 경우의 머리에 착용되는 모자들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들은 일

Corresponding author : Lee, Jin Hee
Tel : 063) 850-6647, Fax : 063)850-7301
E-mail : jinhlee@wonkwang.ac.kr

정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사이즈를 맞춰서 착용하는 것까지 그 사이즈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자류들에 적합한 머리 형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한국산업규격의 모자 치수에서는 머리둘레를 기준으로 1cm간격으로 사이즈를 구성하여 머리 형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이즈 체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판매되는 모자의 치수는 대부분 S, M, L등의 형태로 또는 프리사이즈(free size)로 머리 뒷부분에서 머리둘레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식문화의 한 요소로서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의 의미로 사용되는 모자는 각 민족 또는 국가별로 문화의 형성과 함께 고유한 형태와 특징을 지니면서 계승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그러한 각 민족 또는 국가별 특성은 사라지고 점차 공통화,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 즉, 다른 복식의 변천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유행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 또는 기계화되어 생산되는 토탈패션의 한 부분으로서의 모자산업은 패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모자라는 아이템은 계절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스포츠 레저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당당하게 패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http://www.seahhat.com). 우리 나라의 모자산업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되어 왔으며, 과거의 소규모 생산 및 소비형태에서 차츰 대량생산 및 소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과거의 미비했던 모자에 대한 연구를 좀더 적극적인 학문적 연구와 이론 정립 및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상품생산으로 연결한다면 기능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훌륭한 제품으로서 복식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현대패션산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전북지역 및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으로 설문지 응답 참가자는 434명이었으나 자료가 미비한 것과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을 제외한 418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사항 3문항, 선호 모자 및 색상에 대한 사항 4문항, size및 착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 5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계자료는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F-test, Duncan test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시기는 2002년 4월~ 5월이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다음 <표 1>에 보는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29.8%)보다 여학생의 비율(70.2%)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별로 빈도가 비슷하나 2, 4학년(11.2%, 10%)이 1, 3학년(3.8%. 4.8%)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 4학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성별	학년별	빈도(명)	백분율(%)
남자	1	16	3.8
	2	47	11.2
	3	20	4.8
	4	42	10.0
계		125	29.8
여자	1	47	11.2
	2	105	25.1
	3	32	7.7
	4	109	26.2
계		293	70.2
총계		418	100

2. 모자 치수에 대한 인지도

모자의 치수는 현행 치수 체계에 있어서 머리둘레에 의해 치수를 표기하고 있으며, 머리의 형태나

〈표 2〉 남녀별 모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성별 \ 응답	예	아니오	계
남자	28(6.6)	98(23.1)	126(29.7)
여자	24(5.7)	274(64.6)	298(70.3)
계	52(12.3)	372(87.7)	424(100)

〈표 3〉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의 선택방법

단위 : 명(%)

성별 \ 선택방법	직접 착용해 보고서 결정	판매원에 의해 결정	계
남자	98(99)	1(1.0)	99(26.5)
여자	269(97.5)	6(2.2)	275(73.5)
계	367(97.9)	7(1.9)	374(100)

모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모자 뒤쪽의 조절 여밈장치를 통해 둘레를 조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적 모자 착용이 빈번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수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 본 결과<표 2>, 자신의 모자 치수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87.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모자 치수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성복에 대한 치수 인지도 및 속옷의 치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아직 패션 소품에 대한 정확한 치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품의 하나로 많은 소비가 예측되는 모자의 치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 학생이 모자를 선택할 때 치수를 모르는 경우 치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접 착용해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97.9%로 대부분 판매원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직접 착용해보고 치수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수를 아는 경우 숫자로 표기된 것보다 영문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표 4> 이것은 아직 모자의 치수표시가 머리둘레로만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치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영문표기의 치수 표시도 정확한 경계치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자 치수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모자 착용 시 치수만족도

모자 착용 시 치수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47%, 맞는다는 28.1%, 그리고 잘 맞는다는 15.8%로 모자를 착용했을 때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90.9%)를 나타내어서 size에 대한 불만은 그리

〈표 4〉 남녀별 선택 모자 치수

성별 \ 모자치수	55	56	57	58	S	M	L	XL	x^2
남자	2	5	1	2	3	10	8	3	15.3*
여자	3	1	1	3	6	14	0	0	
계	5	6	2	5	9	24	8	3	

〈표 5〉 남녀별 모자 착용시 치수 만족도

단위 : 명(%)

맞는 정도 / 성별	잘맞는다	맞는다	보통이다	맞지않는다	전혀맞지않는다	계(%)
남자	21(16.4)	27(21.1)	66(51.6)	12(9.4)	2(1.6)	128(30.3)
여자	46(15.6)	92(31.2)	133(45.1)	20(6.8)	4(1.4)	295(69.7)
계	67(15.8)	119(28.1)	199(47)	32(7.6)	6(1.4)	423(100)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그러나, 대부분 맞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불만요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문 문항의 미비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모자의 크라운의 높낮이나 머리둘레와의 관계 및 머리높이, 좌우길이 등을 고려한 설문 척도 개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4. 선호 모자 형태 및 색상

예비조사를 통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모자의 형태를 다음의 7가지로 선정하여 그중 가장 선호하는 모자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남, 녀 대부분이 아폴로캡(65.8%), 크루해트(13.3%), 세트헬멧(9.2%) 순으로 나타났으며, 텐갤런해트(4.6%) 이하는 각각 전체의 5% 미만으로 그 비율이 극히 적어 사실상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남녀별 선호모자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폴로캡은 여학생(60%)에 비하여 남학생(78.8%)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루해트에서는 남학생(7.3%)보다 여학생(15.9%)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세트헬멧 역시 남학생(4.4%)에 비해 여학생(11.3%)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6>. 결과적으로 많은 종류의 모자 디자인이 있지만 일반적이면서 캐주얼웨어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아폴로 캡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녀 학생의 선호 모자 디자인

단위 : N(%)

성별	학년 \ 모자 형태								계
		태모 샌터	아폴로 캡	아이비 캡	텐갤런 해트	크루 해트	캐스캡	세트헬멧	
남자	1	0(0)	14(82.4)	1(5.9)	0(0)	1(5.9)	1(5.9)	0(0)	17(12.7)
	2	0(0)	36(70.6)	2(3.9)	3(5.9)	4(7.8)	2(3.9)	4(7.8)	51(38.1)
	3	0(0)	19(86.4)	0(0)	1(4.5)	1(4.5)	0(0)	1(4.5)	22(16.4)
	4	0(0)	36(81.8)	0(0)	1(2.3)	4(9.1)	2(4.5)	1(2.3)	44(32.8)
	계	0(0)	105(78.4)	3(2.2)	5(3.7)	10(7.5)	5(3.7)	6(4.5)	134(100)
여자	1	0(0)	36(72.0)	2(4.0)	4(8.0)	4(8.0)	1(2.0)	3(6.0)	50(15.9)
	2	1(0.9)	64(59.8)	2(1.9)	5(4.7)	18(16.8)	6(5.6)	11(10.3)	107(34.0)
	3	1(2.9)	20(58.8)	2(5.9)	1(2.9)	6(17.6)	1(2.9)	3(8.8)	34(10.8)
	4	1(0.8)	69(55.6)	2(1.6)	6(4.8)	23(18.5)	4(3.2)	19(15.3)	124(39.4)
	계	3(1.0)	189(60.0)	8(2.5)	16(5.1)	51(16.2)	12(3.8)	36(11.4)	315(100.0)

〈표 7〉 남녀 학생의 소유하고 있는 모자 디자인

모자 형태 / 성별	태모샌터	아폴로 캡	아이비 캡	텐갤런해트	크루해트	캐스캡	세트헬멧	계
남	7	120	9	20	41	13	29	239
여	24	279	26	53	125	35	100	642
계(%)	3.5	45.5	4.0	8.2	18.9	5.4	14.6	100

한편 <표 7>과 <표 8>의 전체 학생의 소유모자 빈도나 남,녀학생의 소유모자의 결과는 선호모자의 내용과 그 순위면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모자의 색상에 대해서는 문자로 표현된 것을 사용하여 실제 색상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소유하고 있는 모자의 색상에서는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베이지색(29.4%), 흰색(20.8%), 검정색(20.1%), 청색(19.1%), 빨간색(10.6%) 순으로 나타나 원색이 아닌 무난한 계열의 색상이나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정색의 경우 남학생(25.2%)이 여학생(18.1%)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흰색의 경우는 여학생(22.1%)이 남학생(17.6%)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청색(19.1%)은 순위면에서는 베이지색, 흰색, 검정색 다음이나 비율면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보여 청색 역시 상위 3가지 색상과 비슷한 선호를 보였다. 이는 김영자의 연구결과(1983)인 갈색, 흑색, 흰색 순으로 무채색을 많이 소유한다고 했던 결과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시대적 차이가 있음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자가 갖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모든 옷에 무난히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표 8〉 남녀별 소유 모자의 색상

단위 : N(%)

성별 / 학년 \ 모자color		흰색	빨간색	베이지색	청색	검정색	계
남	1	3(8.8)	3(8.8)	11(32.4)	10(29.4)	7(20.6)	34(14.6)
	2	18(20.2)	11(12.4)	23(25.8)	16(18.0)	21(23.6)	89(38.2)
	3	8(19.5)	3(7.3)	11(26.8)	8(19.5)	11(26.8)	41(17.6)
	4	12(17.4)	8(11.6)	23(33.3)	7(10.1)	19(27.5)	69(29.6)
	계	41(17.6)	25(10.7)	68(29.2)	41(17.6)	58(24.9)	233(100.0)
여	1	20(23.8)	11(13.1)	27(32.1)	15(17.9)	11(13.1)	84(14.4)
	2	44(21.1)	20(9.6)	60(28.7)	44(21.1)	41(19.6)	209(35.8)
	3	14(22.6)	8(12.9)	22(35.5)	9(14.5)	9(14.5)	62(10.6)
	4	52(22.8)	23(10.1)	65(28.5)	45(19.7)	43(18.9)	228(39.1)
	계	130(22.3)	62(10.6)	174(29.8)	113(19.4)	104(17.8)	583(100.0)

선호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선호모자 디자인 및 색상, size에 관한 내용을 설문지를 통하여 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합성이 높은 모자 제작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선호하는 모자디자인은 아폴로 캡이었으며 남, 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소유하고있는 모자의 색상은 베이지색, 흰색, 검정색 순으로 나타났고, 검정색과 흰색에서는 남, 녀의 소유 비율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3. 자신의 모자 size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는 경우 에도 숫자로 표기된 size로 알고 있는 경우보다 영문 표기(S, M, L…)의 size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4. 모자 착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이 맞는다라고 응답하여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불만요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문 문항의 미비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모자, 치수 인지도, 대학생, 모자 디자인

참고문헌

1. 강병석(1996). 한국 경찰모자의 형태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제27호. 173-187.
2. 강순희(1994). 의복의 입체 구성. 교문사.
3.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1998). 국립기술 품질원.
4. 김경희(1992).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김영자(1983). 현대 여자모자에 관한 연구. 복식. 제7호. 57-69.
6. 김혜경(1988). 아동 모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7. 이경손, 김희섭(2000).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교문사. 182-204.
8. 이정순(1990). 20세기 모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9. 문남원(1998). 모자 디자인을 위한 성인여성의 두부형태 분석. 복식. 제37호. 181-190.
10. 박혜숙(1976). 모자의 기초와 응용. 진명출판사.
11. 조준현(1993). 한국인 두개 안면부 계측치. 계명대학교 대학원 성형외과학 전공 석사논문.
12. 한국산업규격(1999). 모자의 치수.
13. http://www.seahhat.com
14. http://www.cyberware.com